



# 제지 수급동향

## Supply and Demand of Paper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자료제공

국내 주요 제지업체들이 경영여건 개선 기대감 속에 하반기 실적호전을 기대하고 있다.

주원료인 펄프 가격이 하반기들어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의 설비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고질적인 공급과잉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 정부의 반덤핑 판정도 국내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돼 고무적이다. 이에 한솔제지, 무림페이퍼, 한국제지 등 주요 인쇄용지업체들은 각각 하반기 실적 개선 극대화를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시장 공략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한국제지공업연합회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제지업계 지증별 수급 실적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편집자 주 -

### 1. 인쇄용지 업황 회복 기대

제지업계에 따르면 남미지역 펄프 제조 업체들이 앞다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어서 당분간 인쇄용지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분기 부터 국내 인쇄용지업계의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업계 구조조정도 본격화되면서 공급과잉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돼 수익 개선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례로 지난해

한솔제지가 청주공장을 폐쇄했고, 계성제지도 오산공장을 41년만에 완전 폐쇄하고 해당 부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안을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엔페이퍼까지 대전공장 매각이후, 진주공장 일부라인 폐쇄를 진행 중에 있다.

수출전선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미국정부의 상계관세 판정에 이어 아르지 반덤핑 판정도 국내 인쇄용지업체들에게 유리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 판정에서 국내 업체는 0~30.86%, 중국 업체는 23.19~99.65%, 인

[표 1] 종이와 판지 생산캡파

(단위 : M/T)

년 도	합계	신문용지	인쇄&필기용지	포장용지	판지	기타
1980	2,067,000	332,000	331,000	252,000	1,011,000	141,000
1990	5,020,000	580,000	1,005,000	229,000	2,806,000	400,000
1995	7,285,000	921,000	1,731,000	292,000	3,678,000	593,000
2000	11,153,000	1,614,000	2,526,000	287,000	5,923,000	750,000
2001	11,253,000	1,606,000	2,545,000	287,000	5,983,000	779,000
2002	11,437,000	1,606,000	2,602,000	287,000	6,109,000	780,000
2003	11,574,000	1,606,000	2,590,000	287,000	6,258,000	780,000
2004	11,328,000	1,652,000	2,608,000	274,000	5,905,000	829,000
2005	11,097,000	1,652,000	2,608,000	274,000	5,693,000	811,000
2006	10,861,000	1,619,000	2,764,000	278,000	5,383,000	817,000

[표 2] 종이와 판지 생산량

(단위 : M/T)

년 도	합계	신문용지	인쇄&필기용지	포장용지	판지	기타
1980	1,680,025	249,316	292,541	184,222	789,214	137,412
1990	4,524,444	521,938	918,629	231,183	2,272,407	323,672
1995	6,877,564	947,709	1,438,771	266,178	3,300,302	492,004
2000	9,308,431	1,769,857	2,014,228	227,120	4,356,025	494,768
2001	9,332,119	1,584,683	2,134,252	218,345	4,394,738	551,093
2002	9,811,899	1,596,755	2,294,740	235,783	4,600,464	609,943
2003	10,147,628	1,538,165	2,310,773	216,669	4,949,100	638,007
2004	10,511,312	1,678,895	2,474,338	205,180	5,001,658	636,683
2005	10,549,406	1,587,845	2,439,002	196,184	5,055,305	643,651
2006	10,702,670	1,611,655	3,093,532	202,581	5,106,272	688,630

[표 3] 종이와 판지 수출 동향

(단위 : M/T)

년 도	합계	신문용지	인쇄&필기용지	포장용지	판지	기타
1980	154,231	22,050	50,478	1,585	76,415	3,703
1990	483,151	13,588	75,921	17	382,309	10,621
1995	993,675	11,621	370,782	10,963	537,099	60,014
2000	2,469,017	460,260	820,667	1,088	1,120,636	51,473
2001	2,397,628	338,434	937,307	1,717	1,055,161	45,042
2002	2,430,746	274,307	938,905	4,695	1,142,199	45,197
2003	2,739,004	405,422	1,006,980	7,455	1,228,426	60,096
2004	2,996,230	521,579	1,136,718	5,911	1,234,045	62,519
2005	2,930,095	568,650	1,115,446	20,115	1,138,864	52,410
2006	2,912,628	597,531	1,144,859	18,931	1,127,815	23,492



# 특 집

[표 4] 종이와 판지 수입

(단위 : M/T)

년 도	합계	신문용지	인쇄&필기용지	포장용지	판지	기타
1980	31,494	-	425	514	14,390	16,165
1990	274,573	40,313	34,857	265	70,415	125,419
1995	696,994	177,040	123,660	8,704	187,557	185,449
2000	545,824	1,993	122,321	4,514	146,724	244,451
2001	524,033	4,108	113,748	6,521	145,372	233,403
2002	783,725	74,909	245,374	9,611	173,982	246,188
2003	814,486	147,070	230,177	11,672	153,249	263,420
2004	727,604	37,878	192,960	16,892	200,152	261,466
2005	757,325	26,261	215,467	27,856	208,136	264,292
2006	788,881	13,878	244,363	36,250	230,098	264,292

[표 5] 종이와 판지 소비량

(단위 : M/T)

년 도	합계	신문용지	인쇄&필기용지	포장용지	판지	기타
1980	1,540,761	219,969	237,143	177,506	731,730	148,041
1990	4,324,325	557,573	875,366	231,271	1,968,022	433,657
1995	6,423,738	1,123,102	1,169,548	267,679	2,814,446	616,896
2000	7,230,807	1,312,329	1,290,834	133,140	3,260,195	686,197
2001	7,522,073	1,254,921	1,343,523	223,234	3,516,343	717,475
2002	8,078,922	1,374,701	1,578,757	238,558	3,605,930	799,079
2003	8,234,659	1,281,027	1,522,448	219,007	3,902,985	817,531
2004	8,173,020	1,174,050	1,513,342	214,956	3,921,368	839,100
2005	8,352,983	1,049,647	1,542,574	205,224	4,122,085	842,126
2006	8,648,060	1,044,469	2,166,886	231,532	4,279,983	925,190

도네시아업체는 10.85%의 반덤핑관세율이 부과됐다. 특히 국내 업체 가운데 한솔제지 무림페이퍼 한국제지 등 3사가 0%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들 3사는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에서 완전 제외돼 대미 수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펄프가격안정과 인쇄용지 업계의 구조조정 가시화 되면서 인쇄용지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회복될 전망”이라며 “최근 미국 정부의 제지 반덤핑 판정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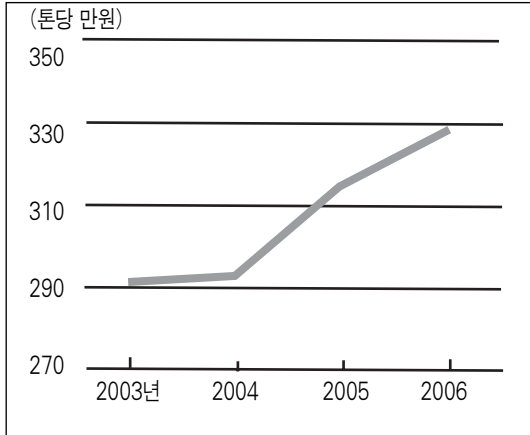
후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실적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 제지 설비 및 수급 동향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제지업계 생산 능력 감소 현상은, 국내 경제의 저성장과 제지업계의 구조조정 노력이 맞물려 당분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종이 및 판지의 생산능력은 1천86만1

[그림 1] 골판지 원지 내수 판매량



천M/T으로 2005년에 비해 2.1% 감소했으며, 1990년을 기준으로는 약 2배 이상 성장했다.

지종별로 보면 신문용지가 일부업체의 가동 중단으로 2.0% 감소, 지난 2004년과 2005년 신문용지의 생산이 동결됐던 것에 비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인쇄용지는 2004년과 2005년 동결되었던 것에서, 신규 설비 가동으로 지난해 보다 5.2% 증가 하였다. 수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포장용지는 연산 3만6천M/T 규모의 공장폐쇄로 11.5% 감소하였다.

[표 7] 신문용지 수급 (단위 : 천M/톤)

연도	공급		수요	
	생산	수입	내수	수출
2002	1,597	75	1,300	274
2003	1,538	147	1,134	405
2004	1,679	38	1,136	522
2005	1,588	26	1,023	569
2006	1,612	14	1,031	598

[표 8] 인쇄용지 수급 (단위 : 천M/톤)

연도	공급		수요	
	생산	수입	내수	수출
2002	2,739	292	1,738	965
2003	2,779	256	1,730	1,038
2004	2,964	209	1,789	1,172
2005	3,043	234	1,878	1,150
2006	3,094	244	1,923	1,145

[표 9] 포장용지 수급 (단위 : 천M/톤)

연도	공급		수요	
	생산	수입	내수	수출
2002	266	10	259	5
2003	243	12	235	7
2004	230	17	223	6
2005	219	28	200	20
2006	203	36	196	19

[표 6] 종이·판지 수급 (단위 : 천M/톤)

연도	공급		수요	
	생산	수입	내수	수출
2002	9,812	784	7,295	2,431
2003	10,148	814	7,420	2,739
2004	10,511	728	7,445	2,996
2005	10,549	757	7,596	2,930
2006	10,703	789	7,859	2,913

[표 10] 판지 수급 (단위 : 천M/톤)

연도	공급		수요	
	생산	수입	내수	수출
2002	4,600	174	3,432	1,142
2003	4,949	153	3,750	1,228
2004	5,002	200	3,722	1,234
2005	5,055	208	3,913	1,139
2006	5,106	230	4,050	1,128



# 특 집

[표 11-1] 2007년 1~4월 중 국내 펄프 및 제지생산·출하·재고현황

(단위 : M/톤)

품 명	전월말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비회원사생산				
			전월비 (%)	내 수	전월비 (%)	수 출	전월비 (%)	계	전월비 (%)	전월비 (%)						
펄 프	B K P	9,232	140,080	99.0	109,765	94.9	-	-	109,765	94.9	39,547	70.7	-	-		
	G P	-	-	-	-	-	-	-	-	-	-	-	-	-		
	T M P	-	26,371	76.4	26,371	76.4	-	-	26,371	76.4	-	-	-	-		
펄 프 합 계		9,232	166,451	94.6	136,136	90.7	-	-	136,136	90.7	39,547	70.7	-	-		
신문용지		52,691	534,229	99.6	344,049	103.8	179,854	91.4	523,903	99.2	63,017	82.3	84,189	101.1		
종 이	인쇄용지	백상지	45,599	189,047	94.9	184,297	98.9	14,236	903.9	198,533	105.7	36,113	73.1	18,673	90.4	
		중질지	1급	2,439	8,134	70.1	8,037	76.5	-	-	8,037	76.5	2,536	49.7	-	-
			2급	7,494	18,799	81.9	18,884	76.9	47	77.0	18,931	76.9	7,362	79.9	-	-
			계	9,933	26,933	77.9	26,921	76.8	47	77.0	26,968	76.8	9,898	69.2	-	-
		기 타	10,448	20,432	80.1	20,987	88.3	190	162.4	21,177	88.7	9,703	77.5	64	6.1	
	소 계	65,890	236,412	91.2	232,205	94.7	14,473	825.6	246,678	99.9	55,714	73.1	18,737	86.3		
	미도공인쇄용지	33,487	106,168	105.9	87,710	98.0	284	53.9	87,994	97.8	51,661	155.7	-	-		
	도공인쇄용지	편면아트지	8,721	42,411	99.3	17,742	101.0	28,012	115.1	45,745	109.1	5,378	68.2	-	-	
		양면아트지	90,382	554,674	100.1	217,718	98.0	332,018	101.5	749,736	100.1	95,320	111.8	-	-	
		상질코트지	4,295	26,944	97.3	25,445	100.1	-	-	25,445	100.1	5,794	89.9	-	-	
		중질코트지	-	-	-	-	-	-	-	-	-	-	-	-	-	
		경량코트지	975	3,792	113.6	3,444	109.3	-	-	3,444	109.3	1,323	170.1	-	-	
		경면광택지	3,363	8,461	94.0	8,524	105.9	640	95.4	9,164	105.1	2,660	117.9	-	-	
		엠 보 스 지	251	770	83.7	542	96.3	135	44.4	677	78.1	344	106.8	-	-	
		기 타	4,912	11,460	91.2	11,447	11.7	691	60.6	12,138	106.5	4,234	77.9	-	-	
	소 계	112,899	648,512	99.7	284,862	99.2	361,496	102.3	646,358	100.9	115,053	106.2	-	-		
	박엽지	인 디 아 지	845	2,237	90.7	2,321	91.2	5	500.0	2,326	91.3	756	118.7	1,209	58.7	
		기 타	-	-	-	-	-	-	-	-	-	-	-	-	-	
		소 계	845	2,237	90.7	2,321	91.2	5	500.0	2,326	91.3	756	118.7	1,209	58.7	
	정보인쇄용지	노카본원지	1,303	2,858	97.5	3,113	99.1	-	-	3,113	99.1	1,048	84.4	-	-	
복 사 용 지		7,128	42,606	91.8	43,048	102.7	261	-	43,309	103.4	6,425	86.7	-	-		
감열지원지		1,621	12,353	124.5	3,018	143.8	8,975	120.0	11,993	125.2	1,981	115.8	-	-		
컴퓨터용지		916	3,347	152.9	2,657	167.8	292	99.0	2,949	157.0	1,314	196.1	-	-		
기 타		900	3,097	69.8	3,071	69.5	-	-	3,071	69.5	986	56.1	-	-		
소 계		11,928	64,261	97.5	54,907	103.3	9,528	122.6	64,435	105.8	11,754	91.9	-	-		
소 계		225,139	1,057,590	98.1	662,005	97.7	385,786	106.1	1,047,791	100.7	234,938	101.6	19,946	-		

[표 11-2] 2007년 1~4월 중 국내펄프 및 제지생산·출하·재고현황

(단위 : M/톤)

품명	전월말 재고	생산			출하						재고		비회원사생산		
		생산	전월비 (%)	내수	전월비 (%)	수출	전월비 (%)	계	전월비 (%)	재고	전월비 (%)	전월비 (%)	전월비 (%)		
종이	특수지	벽지원지	3,004	30,451	117.1	30,079	111.1	-	-	30,079	111.1	3,376	141.7	-	-
		팬시용지	10,734	17,543	112.6	16,905	100.9	1,320	96.0	18,225	100.5	10,052	110.6	-	-
		기타 특수지	6,880	17,530	79.1	17,583	79.7	411	93.2	17,994	79.9	6,416	75.0	4,719	98.6
		소계	20,618	65,524	102.8	64,567	98.0	1,731	95.3	66,298	97.9	19,844	99.1	4,719	56.8
	위생용지	화장지원지	12,070	106,680	103.5	107,453	105.8	709	78.9	108,162	105.6	10,588	93.0	56,988	97.5
		티슈용지	2,305	19,533	109.4	19,480	118.5	-	-	19,480	118.5	2,368	76.2	10,826	108.2
		생리용지	480	2,542	275.4	2,654	191.2	-	-	2,654	191.2	368	101.7	213	119.0
		타월용지	2,343	13,770	100.5	13,982	101.0	-	-	13,982	101.0	2,131	78.4	10,162	99.9
		기타	2,226	2,136	101.5	3,186	178.8	19	86.4	3,205	177.7	1,157	70.5	777	96.8
		소계	19,424	144,661	105.1	146,756	108.7	728	79.0	147,483	108.5	16,602	86.5	78,966	99.2
포장용지	중포장	미표백	13,054	56,058	96.8	49,048	87.7	5,874	103.3	54,922	89.2	14,190	72.6	4,472	98.7
		표백	1,159	2,737	97.8	2,701	98.0	-	-	2,701	98.0	1,195	92.3	-	-
		계	14,213	58,795	96.8	51,749	88.2	5,874	103.3	57,623	89.6	15,385	73.8	4,472	98.7
	경포장	크라프트지	332	4,867	113.5	4,837	86.2	-	-	4,837	86.2	362	338.3	4,770	119.3
	박엽포장용지	4,228	12,339	99.9	11,955	116.5	714	151.6	12,669	118.1	3,898	76.0	12,339	98.3	
	기타	-	-	-	-	-	-	-	-	-	-	-	-	-	
	소계	18,773	76,001	98.2	68,541	92.0	6,588	107.0	75,129	93.1	19,645	75.3	21,581	102.2	
	종이합계	336,645	1,878,005	99.2	1,285,917	100.1	574,687	101.0	1,860,604	100.4	354,046	94.9	209,401	97.0	
판지	백판지 1급	도공	5,790	25,847	107.0	20,717	123.3	6,708	67.7	27,425	102.7	4,212	65.3	-	-
		비도공	512	2,800	165.4	2,254	160.5	-	-	2,254	160.5	1,058	287.5	-	-
		계	6,302	28,647	110.8	22,971	126.1	6,708	67.7	29,679	105.6	5,270	77.3	-	-
	백판지 2급	도공	41,380	317,411	99.0	133,585	98.1	181,248	95.8	314,813	96.7	43,978	116.0	33,305	97.9
		비도공	1,234	4,158	101.4	3,955	132.2	-	-	3,955	104.8	1,437	132.3	-	-
		계	42,614	321,569	99.0	137,520	98.8	181,248	95.4	318,768	96.8	45,415	116.5	33,305	97.9
	아이보리판지	4,728	46,904	102.9	14,791	86.6	31,086	106.9	45,887	99.4	5,745	100.1	-	-	
	소계	53,644	397,120	100.2	175,282	100.5	219,052	95.6	394,334	97.7	56,430	109.5	33,305	91.5	
	지원지	골판지 라이너	크라프트라이너	-	-	-	-	-	-	-	-	-	-	-	-
			테스트라이너1급	51,599	340,916	101.7	298,531	99.5	45,632	104.0	344,163	100.1	48,352	69.3	123,576
테스트라이너2급			49,015	534,651	100.2	506,881	101.2	26,393	123.6	533,274	102.1	50,392	61.2	435,835	94.5
계			100,614	875,567	100.8	805,412	100.6	72,025	110.4	877,437	101.3	98,744	64.9	559,411	93.9
골심지		25,144	367,347	101.2	277,353	98.8	94,990	111.4	372,343	101.7	20,148	49.1	310,821	99.6	
소계	125,758	1,242,914	100.9	1,082,765	100.1	167,015	111.0	1,249,780	101.4	118,892	61.5	870,232	95.8		



## 특 징

품 명	전월말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비회원사생산			
			전월비 (%)	내 수	전월비 (%)	수 출	전월비 (%)	계	전월비 (%)		전월비 (%)			
판 지	컵 원 지	5,059	24,730	105.6	20,403	97.2	1,657	118.0	22,060	98.5	7,729	223.5	-	-
	황 판 지	1,433	2,571	103.2	1,603	76.9	122	115.1	1,725	78.7	2,279	214.8	-	-
	지 관 원 지	4,739	44,123	113.5	42,534	110.7	231	-	42,765	111.3	6,097	70.6	44,307	112.6
	기 타	3,755	25,955	97.7	25,183	97.6	22	29.7	25,205	97.4	4,505	147.5	-	-
	소 계	14,986	97,379	106.6	89,723	102.8	2,032	128.3	91,755	103.2	20,610	127.1	44,307	112.6
판 지 합 계		194,388	1,737,413	101.1	1,347,770	100.3	388,099	101.8	1,735,869	100.7	195,932	75.1	947,844	96.3
종 이·판 지 합 계		531,033	3,615,418	100.1	2,633,687	100.2	962,786	101.3	3,596,473	100.5	549,978	86.7	1,157,245	96.5

판지는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확보를 위한 공장 및 노후 설비 폐쇄 등으로 전년대비 5.4% 감소하였다.

한편, 2007년에도 신규 설비투자보다는 기존 설비에 대한 개·보수 투자로 대신하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생산 능력이 증가세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종이 및 판지 생산량은 1천70만3천 M/T을 기록, 전년대비 1.5% 증가했다.

인쇄용지는 신규설비 가동에 따라 생산량이 1.7% 증가 하였으며, 포장용지는 설비폐쇄의 영향으로 7.3% 감소한 20만3천M/T을 기록 하였다.

판지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백판지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골판지원지의 성장에 힘입어 1.0% 증가하였다.

올해 2월을 기준으로 한 [그림 1]의 골판지 원지 내수 판매량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골판지 업체들이 지난해 이처럼 흑자회사로 거듭나게 된 것은 2004년부터 업계 전반에 걸쳐 추진된 M&A 등 구조조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공급과잉에 따른 덤핑 등이 사라지며 골판지 공급가가 크게 안정된 것이다.

2004년 최대 410만톤에 달했던 골판지 원지 생산량은 이후 점차 감소해 지난해엔 384만t 수준까지 줄었다.

지난해 종이 및 판지의 수출은 0.6% 감소한 2백91만3천M/T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종별로는 신문용지가 전년대비 5.1% 증가, 인쇄용지는 국제 펄프 가격 상승 및 환율하락으로 0.4%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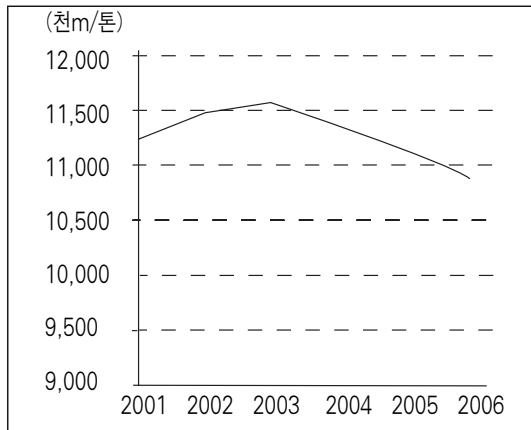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던 포장용지 수출은 5.0% 감소하였고, 판지는 감소추이가 더욱 확대된 백판지의 영향으로 1.0% 감소하였다.

수입의 경우 신문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지종의 수입이 대부분 증가 하면서, 전년대비 4.2% 증가한 78만9천M/T을 기록하였다.

특히 28.6%의 증가율을 보인 포장용지는 다른 지종에 비해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수입지가 국내 소비량의 17.4%를 차지하면서 국내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백판지 수입도 전년대비 48.8%의 증

[그림 2] 종이·판지 시설능력



가을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지종에서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종이 및 판지는 대부분의 지종에서 소비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3.5% 증가한 8백 64만8천M/T을 나타냈다.

신문용지는 광고시장에서 월드컵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광고비가 TV, 라디오 등에 집중되어 그 수혜 폭이 크지 않았고, 인터넷, 케이블TV 등의 뉴미디어 광고시장의 성장 등으로 인한 신문사들의 발행부수 축소 영향으로 전년대비 0.5% 감소하면서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인쇄용지는 2.6%의 소비증가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며, 포장용지는 1.8% 증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섰다.

판지는 국내 제조업의 지속적인 수출 증가와 전년도에 비해 15.3% 증가한 전자상거래의 확대가 포장재 수요 증가를 이끌어 전년대비 3.9% 증가하였다.

한편, 2006년의 1인당 지류소비량은 2005년보다 6.1kg 증가한 179.1kg을 기록하였다.

올해는 미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국제유가 및 환율 등의 대외적 불안요인과 수출 신장세 둔화, 기업투자심리 약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종이 및 판지의 수요도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와 농산물 포장화 사업의 본격 시행으로 인한 골판지원지 부문이 성장을 이끌면서 종이·판지 총 수요는 2% 내외의 성장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월 한국제지공업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지업계의 온라인 전자상거래(B2B)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해, 올해 온라인 거래 규모가 약 1조원에 달할 전망을 밝힌 바 있다.

제지업계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페이퍼마켓(PMP·www.papermarketplace.co.kr)을 통해 거래된 규모는 모두 7,568억원으로 전년도(6,866억원)보다 10% 이상 증가했으며, 온라인에서 직접 결제한 자금도 649억원으로 전년도 269억원보다 141%나 늘어났다.

이렇게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금융비용 절감과 안전한 결제를 할 수 있는 데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분석했다.

특히 페이퍼마켓에 등록된 회원사 수도 크게 늘어나, 2005년 336개였던 회원사 수가 지난해 564개로 68%나 증가했다.





### 3. 친환경 화두로 떠올라

현재 '친환경'이 제지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제지사들은 친환경 용지와 생산시설을 활용한 제품을 앞다퉈 선보이는데, 각종 환경 관련 인증을 획득해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이미지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솔제지가 친환경 고급 인쇄용지 '양코르'를 출시한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양코르'는 재생원료를 55% 이상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염소계 표백제와 형광염료를 일절 첨가하지 않은 게 특징이며 친환경상품 진흥원으로부터 환경 마크를 획득하기도 했다. 특히 재생원료 비율이 높음에도 고급인쇄용지 수준의 인쇄성과 질감을 자랑한다.

한국제지도 지난해부터 온산공장 내 이산화탄소 배기가스를 재활용한 친환경 설비를 본격 가동하며 친환경 경영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제지는 이 공장에서 복사지 '하이퍼CC', 컬러프린트 전용지 'CC프로', 미색용지 등을 생산중이다. 이와 함께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선진국 시장 진출을 위해 FSC 인증을 비롯한 각종 환경 인증 획득도 붐을 이루고 있다. FSC는 국제 비정부단체(NGO)인 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93년 만든 산림경영인증 시스템이다. 한편 무림페이퍼는 최근 국내 제지업계 최초로 FSC 인증을 획득했으며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한 네오아트 SE, 클린 네오플러스, 네오스노우화이트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생산중이다. 이 밖에 한솔제지와 이엔페이퍼도 FSC 인증 획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4. 포장용 백판지 수출 기대

중국 백판지 업계의 급팽창과 내수 경기 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주요 백판지 생산 업체들이 미국과 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솔제지와 대한펄프 등 주요 기업들은 현재 50%를 웃도는 중국 수출 비중을 줄이는 대신 미국, 일본, 중동지역으로 수출 확대에 나서면서 매출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제지업계에 따르면 의류, 신발 등의 포장재로 쓰이는 국내 백판지 시장은 연간 40만톤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전체 생산량이 100만톤에 달해 이중 절반 이상을 수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5년부터 본격화된 중국 백판지업계의 설비 증설로 수출에 타격을 입고 내수 부진으로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내 백판지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주요 업체들은 그동안 중국 등에 편중됐던 수출 시장을 미국, 유럽, 일본, 중동 등으로 다변화하며 대안 찾기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백판지업계 점유율 1위인 한솔제지는 최근 국내 제지업계 최초로 미국 우정청(USPS : United States Postal Service)에 봉투용 백판지를 전량 수출하는 계약을 맺는 한편 'DHL', 'UPS' 등 세계적인 운송업체와도 수출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솔제지는 올 초 USPS에 수출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약 3,100톤에 달하는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월평균 700톤 규모의 백판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DHL, UPS와도 월 150톤 규모의 배송용 투용 백판지를 고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등 미국 백판지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 기존의 수출물량 외에도 신규 거래선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시장확대와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펄프도 중국 수출 비중을 줄이는 대신 미국, 일본,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목재·제지회사인 미국 조지아퍼시픽그룹과 연간 1만

2,000톤(60억원) 규모의 백판지 공급계약을 체결해 관심을 모았다.

대한펄프는 이미 지난 95년부터 미국 중서부 지역에 월 2,000톤가량의 백판지를 수출해 왔으며 이번 계약으로 동부지역까지 판로가 확대돼 월 3,000톤 규모로 수출량이 늘어나게 됐다. 일본 수출도 강화되는 추세다.

대일 수출규모는 지난 2005년 1만톤, 지난해에는 3만톤에 달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7%에서 지난해에는 18%로 증가했다. 다만 원·엔환율 하락 등을 고려해 수출 비중을 소폭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세하(구 세림제지)도 최근 중동지역으로의 수출 물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이 지역에 오일 머니가 넘쳐나다 보니 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후하고 수요도 많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

##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